

대입 정시모집 30일부터 원서 접수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 접수 1월3일까지 진행...가·나·다군 각 1회씩 총 3회 지원 가능·합격자 발표

전북교육청이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 일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까지, 합격자 등록은 2월 9일~11일이다. 정시 미등록 총원합계 통보마감은 2월 20일 오후 9시까지, 정시 미등록 총원등록 마감은 2월 21일이다.

2022학년도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정시 모집인원은 8만4175명으로 전년도 8만7376명보다 4102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24.3%에 달한다.

도내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은 ▲전북대 1,407명 ▲군산대 380명 ▲원광대 385명 ▲전주대 203명 ▲우석대 78명 ▲전주교육대 183명 ▲호원대 228명 등이다.

모집군별 면접 실기 등의 전형기간은 ▲가군 2022년 1월 6~13일 ▲나군 2022년 1월 14~21일 ▲다군 2022년 1월 22~29일이다. 정시 지원은 각 군별 한 번씩 모두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전국 133개 전문대학은 2022학년도 정시모집을 3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한다.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까지, 합격자 등록은 2월 9~11일이다. 정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을 위해 2월 28일까지 자율 모집을 실시한다.

전문대는 대학 간 복수 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2 대입 정시전형에 응시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 검정고사생 및 재수생을 위해 12월 16일~23일 대면 진학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진학 상담에 나선 현직 고등학교

교 교사로 구성된 입시 컨설팅팀은 정시에 지원할 수험생들에게 모집군이 변경된 대학을 반드시 확인한 것과 영역별 반영비율, 반영 과목 수, 영역 반영 방법에 따른 본인 성적의 유리불리를 철저히 분석해 가·나·다군을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의 백혜진 교사는 "영역별 반영비율,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 등급별 환산점수 등을 변경한 대학들이 많다"며 "지원 전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정시모집요강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이 행복한 정책 만들기

비대면 수업·사회적 거리두기로 친구와 교류·경험 감소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하는 행복수당 도입 검토해야"



이항근 출마예정자

이항근 전북 교육감 출마예정자가 학생들의 행복을 전북교육의 중요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학생행복을 중요정책으로 설정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행복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생애주기별 자기주도학습비 지원, 행복수당, 방학중 학교는 물론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문제 등에 공동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한학기 5만원씩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행복수당을 지급해 영화 관람 등 문화활동과 스포츠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30일부터 3일 간 도내 중·고등학생 662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5%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학생들이 성적과 함께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군산화현중학교 교장과 전주교육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1월로 예정된 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 경선후보에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이항근 출마예정자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생애주기별 자기주도학습비 지원, 행복수당, 방학중 학교는 물론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문제 등에 공동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군산화현중학교 교장과 전주교육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교육위원회 설치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1월로 예정된 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 경선후보에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창의-감성에 의한 미술이야기' 주제展

전주교대 미술교육과

창작발표회 성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최근 전주시 교동미술관 본관 1층에서 미술교육과 창작발표회 '창의-감성에 의한 미술이야기' 展을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의-감성에 의한 미술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창작발표회에는 미술교육과 서유미 교수, 장지성 교수, 장동호 교수의 작품이 전시됐다.

작가 일동은 오미크론의 발생과 확산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하는 위드코로나의 현실에서도 끊임 없는 예술활동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서유미 작가는 '이산가족의 한'이라는 작품에서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큰 고통인 분단의 아픔을 담아 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창작발표회는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뤄졌다.

김우영 총장은 "서로 간의 예술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에게 이번 창작발표회에 물어낸 작가들의 격려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웃에 희망 주는 물리치료가 될 것'

호원대 유하늘씨

국가면허 전국 수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물리치료학과 유하늘씨(4년)가 지난 12일에 치러진 제49회 물리치료사 국가면허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시험에서 유씨는 280점 만점 기준에 251점(96.5점/100점 환산 기준)을 받아 총 5,597명의 응시자 중 1등을 차지했다.

유하늘씨는 "학과 수업과 스터디를 활발히 하면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도움을 주는 물리치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원대 물리치료학과는 2013년에 신설된 학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17년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응시자 100% 합격 및 2021년 전국 수석자 배출 등 경쟁력을 갖춘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스포츠재활 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여 다양한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과 최신 실습장비 구축 등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권산=한경봉 기자



전북도교육청과 본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연대는 2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회의실에서 2021년 단체협약 합의를 조인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단체협약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전공노 강주용 지부장, 교공노 정기용 위원장, 통공노 김중태 지부장, 한공노 황태학 지부장이 참석해 합의를 서명했다.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전공노·교공노·통공노·한공노 등 참여... 기존협약 86건 포함 총 363건 합의

전북도교육청과 본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연대는 2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회의실에서 2021년 단체협약 합의를 조인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단체협약식에는 김승환 교육감과 전공노 강주용 지부장, 교공노 정기용 위원장, 통공노 김중태 지부장, 한공노 황태학 지부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조 연대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올해 12월 1일까지 36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 그 결과 68.2%(61/277)건에 대해 합의했다.

다. 기존협약 86건을 포함하면 총 363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요 항목은 ▲인사제도 57건 ▲교육훈련 26건 ▲노동조합활동 37건 ▲노사단체협의 24건 ▲행정업무 개선 63건 ▲근로조건 개선 74건 ▲후생복지 34건 ▲정부 건의사항 13건 ▲총칙·부칙 등 35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노조 추천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점진적 고려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 교육정책에

관해 워크숍 연 1회 개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시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 참석 ▲업무관련 회의 등은 근무시간 내에 하도록 권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건강한 노사관계의 기본은 상호존중과 인정 그리고 신뢰"라면서 "오랜 기간 인내와 성실로 교섭에 임해 준 지방공무원노조와 도교육청 대표위원과 교섭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합의를 실천하는 일에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돌봄·방과후 업무에서 교사 배제하라"

전교조 전북지부성명서 발표·도교육청 합의... 돌봄전담사가 시간외 근로·시급 추가 지급 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교사를 돌봄, 방과후 업무에서 배제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한 내용을 각급 학교로 전달했다. 합의안은 '돌봄전담사가 돌봄활동 준비 및 정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외 근로를 보장하지만, 추가업무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돌봄 지자체 이관을 위해 돌봄전담사의 4시간 근무제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돌봄전담사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해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그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 이관은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 이관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이관'이라는 핑계를 대며 현장 교사들의 돌봄, 방과 후 관련 업무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도교육청은 '지자체 이관'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에 숨겨야 한다.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지금 당장 학교 현장의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교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농생명ICT학과는 28일 호남주류 디오니(대표 송민각)와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산업 적합 자격 갖춘 학생 교환

전주대 농생명ICT학과-호남주류 디오니, 업무협약

전주대학교 농생명ICT학과(학과장 김지은)는 28일 호남주류 디오니(대표 송민각)와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오니는 판매를 넘어선 주류 전문가 육성 및 기업 문화행사 제공을 위해 '한국주류교육개발원' 교육 법인을 설립, 전주대 농생명ICT학과는 농생명산업 분야 경영체 운영·관리 노하우 습득을 위한 프로젝트 및 실습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대 농생명ICT학과와 디오니는 학술 및 연구협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현장교육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농식품산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학생 교환 ▲전문 인력의 상호교환 및 교류 ▲농식품산업 관련 학술 및 전문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공동 연구 등이다.

김지은 교수는 "전주대 농생명ICT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농식품 경영체에 대해 학습하며 열정을 발휘하고, 디오니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오니 송민각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학과와 디오니 모두 농식품산업의 이해도를 넓히고,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수산질병 진단기술 해외 현장 유효성 평가 수행

군산대 수산생명의학과 박경일 교수 연구팀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산생명의학과 박경일 교수와 해양기생충학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은 한국해양수산과학진흥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의 해안을 방문하여 대서양달팽이 기생하는 기생충 *Parkinsus marinus*에 대한 신규 진단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진단기술 현장 유효성 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박경일 교수 연구팀은 2차례에 걸쳐 미국 동부와 남부해안을 방문하여 *P. marinus*를 채집하고, 지리적 차이에 따른 유전적 변이를 갖는 *P.*

*marinus*에 대한 진단 효율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이는 개발된 진단기술이 타겟 병원의 유전적 변이와 상관없이 높은 진단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써 본 기술의 시범화 이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1차 평가는 지난 7월에 미국 동부해안의 뉴저지, 버지니아 및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되었으며, 금번 평가는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주 연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평가에 군산대학교 박경일 교수를 비롯한 박사과정생 1명과 학부생 4명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권산=한경봉 기자